문화광장

새로운 미적 경험을 열어가는 예술 기획

김 연 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르네상스 시대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쓴 '회화론'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그중 하나가 파라고네 즉 예술 장르 간의 비교다. 당시에는 시를 눈으로만 읽기보다 낭독을 했기에 청각으로 전달되는 예술로 보았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회화는 눈으로 전달되고, 시는 귀로 전달되기 때문에 회화가 시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눈은 고귀하고 믿을만하지만, 귀는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시각을 우위로 한 감각의 위계가 예술 장르의 위계를 결정한다고 여겼다. 시각이 다른 감각 기관보다 뛰어나다는 이러한 견해는 시각을 이성과 연결 지으면서 근대를 지배했다.

오늘날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더 우수하다는 주장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시각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돼 있다.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눈을 자극해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다. 또한 소비자는 화려하거나 충격적인 볼거리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이러한 경향은 시각예술에도 영향을 끼쳐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나, 이미지가 충격적이거나,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등 시각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이 늘었다. 비시각장애인이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전체 정보량 중 시각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근대 이후 시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체제가 만든 진화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각을 중심에 두고 형성된 사회는 다른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시각장애인이 시각 정보를 이해할 수 없으니 그것을 전달하려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짓는다. 물론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은 미술 작품을 눈으로 감상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예술을 몰라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시각장애인이든 비시각장애인이든 대개 시각장애인이 미술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회화에는 형태, 구도와 같은 요소도 있지만 색도 주된 요소인데, 특히 태어날 때부터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색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우리가 시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던 많은 요소는 다른 감각으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접 대상을 만져보면 된다. 언어로 설명해 주는 방법도 있다. 작품을 만져볼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고, 시각장애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작품을 설명해 준다면, 지금은 시각장애인이 미술 작품을 미적 대상으로 감상할 수 없어도 미술에 관심을 둘 수 있으며, 미술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쌓인 정보가 다른 감각 기관에 의해 어떻게 새로운 미적 경험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모른다.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도록, 새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예술 관련 기획이 늘어나길 바란다.

열린마당

돌봄교실과 돌봄서비스

강 권 식
전 제주영송학교 교장

제주도교육청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 및 원격연수를 운영해 전문성 신장을 꾀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아동이 입급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위촉하는 등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방과 후에 하는 활동인 돌봄교실이 학교라는 시설에서 교직원의 업무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돌봄교실은 정규 수업 시간과 보호자의 양육시간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활동이므로, 교육보다는 보육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돌봄교실에 대한 업무를 교육청과 학교에서 대부분 처리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세심하게 설계돼, 정규 수업 시간 이후의 돌봄은 돌봄교실이 아니라, 학교와 교직원의 손을 거치지 않는 돌봄서비스로 인식이 바뀌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관련 부서와 협동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법규를 마련해, 교육청과 학교 구성원들은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윤 후보 '멸공' 가세 동의 어려워"

원 전 지사 불편한 심경 토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멸공' 논란에 가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썩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

10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원 전 지사는 윤 후보가 장을 보며 달걀, 파 등을 구입해 '멸공' 논란을 부른 것에 대해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한 건지, 아니면 실제 그런 의도로 한 건지는 추측의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하다"면서 "저도 썩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또 원 전 지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단일화 국면까지 한달가량 남았는데, 한달이면 지구를 몇 바퀴 돌지 모른다"고 전망. 이상민기자

농업보조사업 신청 '한방에'

○…서귀포시 남원읍이 도내 최초로 복잡한 농업 보조사업 신청 서류를 한곳에서 일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생시책 '혼디모앙!' 서비스를 최근 본격 시행하며 주민 호응이 예상.

남원읍은 공익직불금 신청 전국 1위(지난해 4481가구)를 차지하는 만큼 타지역에 비해 농업분야의 행정 수요가 많아 갖가지 서류 구비 등 신청 농가에서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오성한 읍장은 "농업 보조사업 신청 때마다 서류 구비로 장시간 기다리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중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사설

공장도 멈추게 한 서부 지하수 오염 '충격'

제주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이 감귤 가공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몰고와 충격이다. 서부권 지하수 오염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대형공장 가동까지 멈춘 산업피해로 이어진 건 처음이라 큰 우려를 낳는다. 지하수 오염 주 원인이 장기간 양돈장 분뇨와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지목돼 온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림읍 소재 제주도개발공사 제2감귤가공공장 가동 중단 사실은 지난 7일 도의회에서 2021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대책 현안 보고회서 나왔다.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온 비상품 감귤 수매 물량 확대를 보고하는 자리서 가공 감귤을 처리하는 제2가공공장 중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0년 공장내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 대표 오염 무기물질인 질산성 질소 기준치 초과 검출로 용도 폐기됐고, 이후 일반 상수도를 이용한 감귤 세척에 나섰으나 여러 문제를 노출, 끝내 가동 중단됐다는 얘기다. 2003년 수 백억원을 들여 지은 제2감귤가공공장이 세척수 문제로 향후 가동마저 불투명한 초유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지하수 오염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 년전부터 한림 한경 애월 대정지역 지하수가 양돈장 배출 분뇨와 농경지 화학비료 과다 사용 등에 의한 질산성 질소·병원성 세균의 기준치 초과 검출로 지역 여론을 들끓게 해 왔다. 지하수 오염문제가 청정제주 이미지 훼손을 넘어 공장을 멈추게 한 산업 피해로까지 이어진 현실을 더 이상 두루뭉술 넘겨선 안된다. 도는 고강도 오염방지대책 마련을 서두를 때다.

섬에 산다고 엿장수처럼 배송비 물리나

제주도민들의 배송비 부담이 만만찮다.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다. 기본배송비에다 추가배송비까지 따른다. 그렇다고 어떤 부과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판매자마다 부과하는 배송비는 천차만별이다. 한마디로 멋대로 매기는 '엿장수 배송비'나 다름없다. 판매자에 따라 많게는 무려 20배나 차이난다니 납득이 되겠는가.

제주도가 엊그제 발표한 지난해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결과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 배송비가 제주의 경우 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443원)에 비해 5.7배 높았다.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091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슷한 물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에서 2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배송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배송비에 대한 부당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2017년에는 제주연구원이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알렸다. 그 때도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 원가는 500원이지만 택배요금은 2500~5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민들이 부담하는 특수배송비는 매년 6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민들이 '봉'이 된지 오래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도민들이 언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미 국내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섰다. 그런 만큼 제주도가 배송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환영
◆ 전화 · 대면상담 무료
◆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그랜드 보청기
2022년 임인년 파격이벤트!!
국내판매중 보청기 전제품 보상판매지원
처음 방문고객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BTHBA 히트브랜드 대상 1위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북동쪽 바닷가 방향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4) 강정해안도로 접
607평 ★360만원★ 카페 최고뷰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호근동 범섬 뷰, 최고 전원주택
360평,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